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공희라, 김광호, 김근봉, 김길자, 김순석(임영덕), 김재인(이강우), 맹관순, 김경태(유은자), 김경배(임승주), 김경환(임영미), 김지현(유소정), 김준화, 김희규, 맹관순, 박복래, 박은숙, 박종삼, 박진숙, 박원식(이난수), 유광희, 윤정호(유옥자), 이기자, 이호준(안금자), 장영원(김옥자), 정경순, 조규영, 최정순.(총27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경엽, 김근봉, 김길자, 김순석(임영덕), 김은숙, 김원재, 김경태(유은자), 김경배(임승주), 김지현(유소정), 김태대(박복순), 김현구(서재희), 류정현, 류형도, 박순용, 박종삼(이영환), 박진숙, 석영기(이희순), 손경아, 안금자, 윤정호(유옥자), 윤준호(이인숙), 이기자, 이한웅, 이향교, 장영원(김옥자), 전순봉, 조옥자, 현동건(이윤옥), 무명.(총30명)

☞ 감사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래, 김경태, 김길자, 김명숙, 김병울(이영숙), 김순석(임영덕), 김은숙, 김경자, 김춘화, 김해숙, 김현구(서재희), 김현진, 박부홍(최귀남), 박부홍(최귀남), 박진숙, 배숙자, 백남실, 서재희, 신영신, 양영목, 염영분, 유옥자, 유은자, 윤병호, 윤현영, 이근자, 이기자, 이인숙, 이필숙, 이인숙, 이종문, 이춘취, 임만순, 임승주, 임영덕, 전순봉, 정경순, 정기성, 정영심, 채만기(장은주), 채영업, 최선미, 최효자, 허봉선, 현복자, 황영옥, 유지부, 심상린, 최태남, 무명.(총52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래, 윤희진, 김민성, 김민혁, 김정훈, 김지훈, 김정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경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서재희, 송백련, 신지현, 신현진, 심은숙, 안지영, 양영목,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민숙,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홍은민, 홍준민, 황영옥, 무명.(총40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29주 : 열왕기하 20장 1절 - 23장 9절			
주 일	열왕기하 20장 1 - 11절		
월요일	열왕기하 20장 12 - 21절	목요일	열왕기하 22장 1 - 11절
화요일	열왕기하 21장 1 - 9절	금요일	열왕기하 22장 12 - 20절
수요일	열왕기하 21장 10 - 26절	토요일	열왕기하 23장 1 - 9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준준 방석태 윤병호 김경성 김병을 최기운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욱 장영원 이혜석 공경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중	
	전 도 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승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애덴 : 최원지	홍 산 나 : 김안나 엔 펠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해윤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준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경숙 수리남: 안석열 이성욱 A X 국: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홍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선 정세미 멕시코: 김흥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화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7. 5 주일 예배 설교

가시의 은혜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5-10절

설교: 이진우 목사

누구나 인생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때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있으며, 비바람과 풍랑으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가시에 대하여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고통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가시와 삶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가시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복되고 어디를 가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의 가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1. 이 가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했고,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4장 6절에서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다 되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말들이 이사야 14장 12절과 에스겔 28장 14절인데, 모두가 교만한 자의 말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만하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요,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 자빠진 것이고 무너진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강퍽했습니다. 그렇기에 참 하나님인 요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비난했고, 모욕하며 채찍을 때림도 모자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2.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자아발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천국의 이치는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가난해지면 부유하게 하시며,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습니다. 육신에서 죽고, 다른 자들을 마취하는 마음에서 죽었으며, 물질에서, 명예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모든 것에서 바울은 스스로 죽은 자였습니다. 분명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약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울은 매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한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이며, 세상을 잃은 듯하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였던 것입니다.

3. 또한 십자가 고난을 깊이 깨달아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참으로 신앙은 체험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실패를 맛보고 좌절할 때 우리는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 나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4. 그리고 이러한 가시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가시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창세기 3:18-19). 인생은 땅 흘러갈 때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눈엣가시가 되고 열구리에 피르는 것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민수기 33:55).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는 죄와 악한 생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 인생의 가시는 고통이요 슬픔일 수 있으나 성도에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작이며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고난도 유익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에게 주어진 가시로 은혜요 그것을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들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1 - 29

2015. 7.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흐르는 시내
A garden fountain A well of living Flowing streams [이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